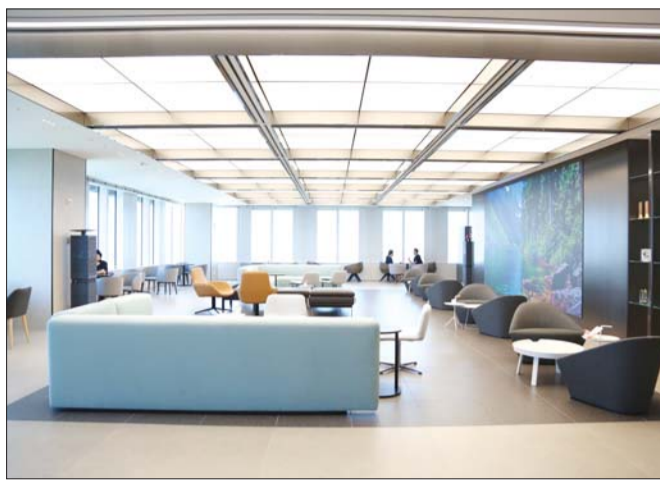


신한·키움證, ‘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 등 사회공헌 활발

신한투자증권 ‘카페스윗 여의도점’ 장애 차별 없이 근무자로서 존중 여의도 역사 내 ‘SOL 스테이션’ 조성 키움증권, 사내카페 키오스크 ‘주목’ 임직원 선택분야에 1000원씩 기부 리우저블 컵으로 종이컵 수요 줄여



TP타워 41층에 최근 오픈한 신한투자증권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카페 ‘카페스윗 여의도점’ 모습. /신한투자증권



TP타워 4층에 위치한 키움증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내 카페. 6개 분야에 기부할 수 있도록 ‘키움과 나눔’ 키오스크가 마련돼 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 여의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한 ‘TP타워’ 내에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운영하는 두 곳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카페가 관심을 끌고 있다. TP타워와 직접 연결된 여의도역 역사 안에는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SOL 스테이션’이라는 쉼터도 조성되면서, TP타워에는 증권사들의 사회공헌 움직임이 묻어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P타워에 새동지 마련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각각 41층과 4층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TP타워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이 교차하는 초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신사옥에 오픈한 ‘카페스윗 여의도점’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카페로 9호점째다. ‘카페스윗’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스위트는 ‘신한과 함께’라는 의미

를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증권가는 저층에 영업부를 두고 있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신사옥 이전과 함께 영업부를 제일 고층인 41층으로 올렸다. 고객들이 신한투자증권에 방문했을 때, 고층에서 즐길 수 있는 여의도 전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사옥 이전을 기념한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고객들이 찾으시는 영업부서와 카페스윗이 모두 위치한 아주 의미 있는 41층”이라며 “TP타워의 ‘TP’를 의미하는 ‘Teacher’s Pension (사학연금)’이 신한투자증권에게 있어서는 ‘Turning Point(전환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페스윗 여의도점’은 여의도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큼직한 창문들이 벽을 대신하고 있다. 카페스윗 여의도점을 관리하고 있는 엄윤정 점장은 “현재 청각 장애인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곧 농인분도 함께 일하게 될 것 같다. 구성원과 고객 모두 힘든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적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만큼은 차별 없이 근무자로 존중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서 손발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픽업대에서 고객을 위한 안내 업무를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자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역 역사 내에는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SOL 스테이션’이라는 문화공간이 조성돼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쉴 수 있도록 앉을 자리를 구성함과 동시에 신한투자증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날 ‘SOL 스테이션’에서 쉬고 있던 김모(여·50대)씨는 “의자 배치나 시원한 블루 컬러 등이 휴식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적합해 보인다”며 “사실 신한투자증권역이 됐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쉴 곳이 생겨서 앉아 있다보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역이라는 역명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여의도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

한투자증권이 편의성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여의도역은 신한투자증권역으로 역명을 병기하고 있다.

더불어 키움증권도 TP타워 4층에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내 카페를 운영 중이다. 주목되는 점은 사내 카페에 놓여진 ‘키움과 나눔’ 키오스크이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지역사회 ▲모자보호소 ▲화재피해 ▲장애인이동권 ▲동물구조 ▲언어치료 등에 기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임직원들이 자신의 사원 카드를 인식시키면 선택한 분야에 해당 1000원씩 기부된다. 3일 오전 10시 기준 누적 금액은 약 104만원으로, 사내 카페의 오픈 시기를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적립액으로 보여진다. 지난 7월 15일 사내 카페가 오픈한 이후로도 약 일주일 뒤인 23일에 들어서 기부 키오스크가 생겼다.

더불어 키움증권은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리우저블 컵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개인 리우저블 컵을 사용하며, 이외에 카페를 이용객에게는 사내카페에서 관리하는 리우저블 컵이 제공된다. 카페를 이용하고 있던 키움증권의 한 임직원은 “리우저블 컵으로 바꾼 이후 종이컵 수요가 확실히 줄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 godhe@metroseoul.co.kr

되살아난 ‘R의 공포’

안정적인 파킹형 ETF·바이오株 ‘눈길’

美 제조업 지표·경기 둔화 등 부정적인 지표에 글로벌 증시 급락 엔비디아 폭락에 ‘AI 버블론’ 확산

지난달 5일 ‘검은 월요일’ 이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발(發) ‘R(Recession, 침체)의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의 자금은 큰 하락세를 피한 바이오주와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4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974.97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S&P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6% 하락한 5520.07에, 나스닥지수는 0.30% 떨어진 1만7084.30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영향이 컸다. 아울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내 경제 활동이 정체되거나 둔화된 지역이 총 12개 관할 지역 중 9개 지역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보다 경기 둔화 지역이 4개 더 증가한 규모다. 안소는 KB증권 연구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과 제조업 활동이 약해졌다” 평가했다.

각종 부정적인 지표 탓에 이들 연속 하락세를 보인 뉴욕 증시는 글로벌 증시를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 9.5% 폭락한 데 이어 1.66% 추가로 떨어졌다. 엔비디아 한주가 106.21달러에 거래되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도 2조6050억달러로 줄었다.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AI 버블론’이 힘을 얻자, 투심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로 옮겨 가는 동시에 차기 황제주로 바이오주를 꼽았다.

‘파킹형 ETF’는 CD·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KOFR) 등 초단기 채권의 금리를 일할 계산해 복리로 반영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최근 5일 동안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를 2960억원가량 거래했다. 이는 코스콤 ETF체크에서 거래된 ETF 중 3위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바이오주의 경우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 동안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KRX 300 헬스케어’ 부문이 6.07% 상승했다. 반대로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KRX 반도체’는 같은 기간 13.61% 급락했다.

박재경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 들어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2.7%, SK바이오팜은 45.0%, 유한양행은 73.1%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 업무 공유·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4일 ‘2024년 제1회 지속가능성위원회(구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3월에 발족한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가 ‘지속가능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현황 및 계획과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신한투자증권 “10~30대, ETF 투자 선호”

최근 5개년 ETF 분석 결과

신한투자증권은 2024년 주식을 투자하는 고객들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패턴을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주 연령층은 10~30대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데이터마케팅부의 최근 5개년 ETF 분석 결과(2020년부터 2024년 2분기까지)에 따르면 ETF 보유 고객수 비중은 30대가 27.5%로 가장 높게 형성돼 있으며, 주 연령층은 10~30대로 집계됐다. 자산 규모로는 자산 성숙기에 해당하는 40~50대가 전체 ETF 투자 자산의 52.3%를 차지한다.

주식 자산 대비 ETF 보유 비중은 10~30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투자 금액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14.2%, 20대는 15.6%, 30대는 11.6%, 40대는 9.1%, 50대는 5.9%, 60대 이상은 4.1%로 10~30대 젊은 연령층 고객들이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ETF를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30대 젊은 연령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간편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ETF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10~30대 투자자들의 ETF 투자 비중이 매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편, 10~30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P500과 나스닥100지수 추종 ETF였다.

/신한투자증권

LS증권, 美 유리버스와 STO 사업 ‘맞손’

토큰증권 플랫폼 등 협력 전망

LS증권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IT) 기업인 유리버스와 토큰증권(STO)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LS증권 본사에서 맺은 협약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재무적투자(FI) 투자, 차세대 금융서비스 사업 등에서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유리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IT 기업이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기반 기술을 보유 중이다.

앞서 LS증권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신사업추진팀을 신설했다. 이후,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 토큰증권 기반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윤지호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전무는 “유리버스 팀의 사업에 대한 통찰력과 기술력을 접목해, 혁신적인 토큰증권 기반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